
해외배낭여행 결과보고서



해외배낭여행 결과보고서 '메이플팀'

해외 선진시설 견학 및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시행한 해외 배낭여행 결과 보고 임

1 여행목적

- 4차 산업 선도 및 도시 인프라 구성이 뛰어난 선진국 캐나다 벤치마킹
-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개인 역량강화
- 공단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안목 배양

2 추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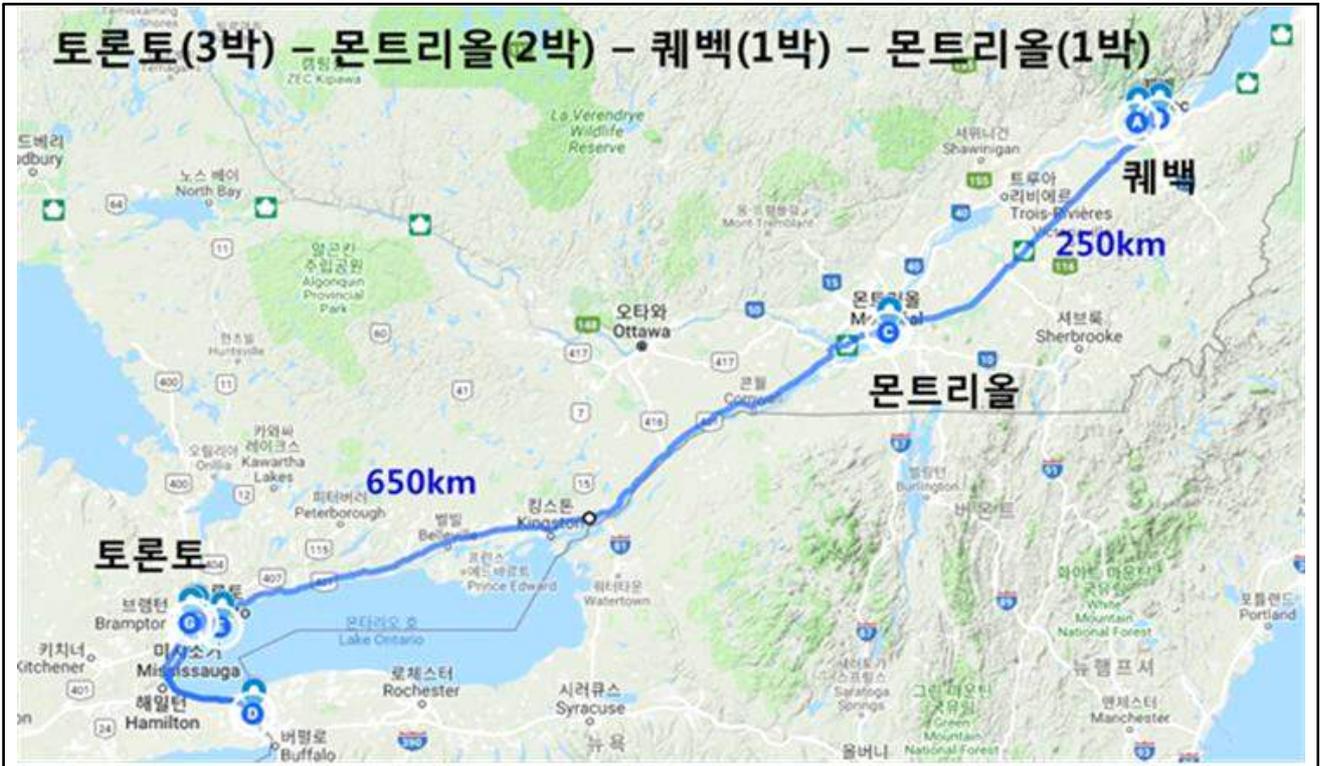
- 팀 명: 메이플
- 여행기간: 2019. 10. 23. ~ 10. 31.(7박 9일)

소 속	안전관리팀	총무인사팀	장사시설팀	재무회계팀
이 름	심 기 민	이 진 아	조 현 우	김 진 경

※ 선물 수령 및 신고: 해당없음

3 여행일정

일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현지 시간	교통편	방문기관	주요내용
10/23 (수)	인천	토론토	09:45	항공 현지교통	캐나다 토론토 보안장비 전시회	2019 캐나다 토론토 보안장비 전시회 참석
10/24 (목)	토론토	토론토	전일	현지교통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관광자원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10/25 (금)	토론토	토론토	전일	현지교통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스 탐방	도시환경정비 및 공공디자인 벤 치마킹
10/26 (토)	토론토	몬트리올	09:00	현지교통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	도시 지하공간활용 우수사례 수집
10/27 (일)	몬트리올	몬트리올	전일	현지교통	몬트리올 구시가지	시설물 관리 실태 조사 및 고객 서비스 벤치마킹
10/28 (월)	몬트리올	퀘벡	09:00	현지교통	퀘벡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관리 실태 조사 및 고객서비스 벤치마킹
10/29 (화)	퀘벡	몬트리올	14:00	현지교통		
10/30 (수)	몬트리올	인천	09:00	항공 현지교통		



여행 경로

4 국가정보



- 언어: 프랑스어, 영어
- 면적: 9억 9,846만 7천ha 세계2위(한국의 105배)
- 인구: 3,727만 9,811명 세계38위(한국의 0.7배)
- 인당 GDP: 4만 5,032.12달러 세계15위(한국의 1.5배)

< 토론토 >

○ 2019 캐나다 토론토 보안장비 전시회(Security Canada Central)

- 개최기간: 2019. 10. 23. ~ 10. 24.
- 참가국: 캐나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 산업분야: 보안, 안전설비
- 전시분야: 출입인증, CCTV, 화재, 가스안전, 원격감시 등
- 주요내용: 안면인식 CCTV 관련 첨단장비 및 솔루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출입통제를 위한 ID 카드, 스피드게이트 등의 제품이 전시되고 있었음. 제품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배부보다는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고 있었다.

※ 전시장 내부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 나이아가라 폭포

-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폭포
- 유람선 투어, 헬리콥터 투어, 짚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activity) 보유하고 있었다

(이용 관광객 수 : 유람선투어 > 제트보트 > 헬리콥터투어 > 짚라인

이용요금 비교 : 유람선투어 < 짚라인 < 제트보트 < 헬리콥터투어

-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는 캐나다 폭포가 53m, 미국 폭포가 21~30m였고, 물의 양도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도 적합하며, 유량이 많을 때면 분당 168,000㎥가 내려온다. 사시사철 물안개가 피어있고, 1961년부터 수력 발전소가 건립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서구의 가장 큰 수력 발전소였고, 현재도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에는 총 219만kW 용량의 13개 발전기가 있다고 한다.

※ 국내 최대 설비용량을 가진 댐인 충주댐: 41만kW



인천공항 출발



토론토 보안전시회
(내부 사진촬영 금지)



나이아가라폭포(야경)
폭포 맞은편에서 조명을 투광하고 있었으며,
조명색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었음
밤12시 조명 소등



나이아가라폭포 주변 관광지
(관람차, 전망대, 음식점, 쇼핑몰, 호텔 등이
위치하고 있었음)



나이아가라폭포(유람선)
유람선을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



나이아가라폭포(유람선)
관광객은 비옷을 입고 유람선에 승선하며, 폭포
근처까지 물보라를 맞으며 이동함



나이아가라폭포(헬기 탑승)



나이아가라폭포(헬기)
헬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일대를 둘러볼 수 있음

○ CN타워

- TV와 라디오 전파 송신탑으로 건설되었으며, 전체 높이 553.3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 전망대는 346m의 룩 아웃과 447m의 스카이 포트가 있다. 바닥이 유리로 된 글라스 플로어도 화재가 되어 있으며, 타워의 바깥 둘레를 안전그네를 메고 걷는 엣지워크(Edge Walk)라는 어트랙션도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있었다.



CN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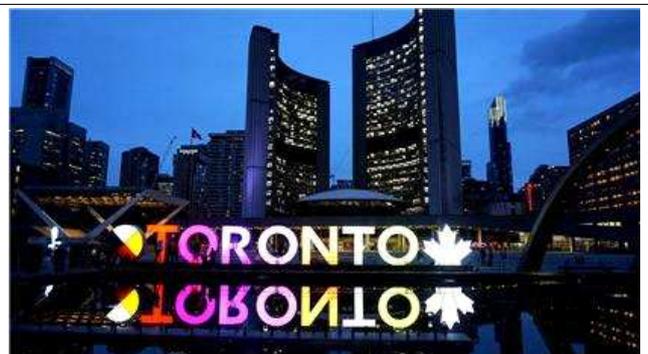
CN타워 외관 점검용 곤돌라



엣지워크(Edge Walk) 체험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CN타워 전망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음



토론토 시청(야경)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스

- 영국인 이주민에 의해 1982년에 만들어진 위스키 제조공장으로 2003년 5월 토론토시 정책에 의해 창의적인 사고와 표현을 위한 보행자 전용 문화예술지구로 재 조성 된 곳이라고 한다
- 유서 깊은 붉은 벽돌 건물 안에는 갤러리, 영화관, 예술가 공방,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쇼핑몰로 변모해 있었으며, ‘스트리트 브루어리’ 라는 상점에서는 자가 양조 맥주를 만들고 있었고, 여러 종류의 생맥주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 토론토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공구상가였던 곳을 개조하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변화가로 탈바꿈한 전포카페거리를 연상케 하였다.



과거 위스키 제조공장이었던 건물



역사지구 유래 안내판



카페 및 쇼핑가로 재조성



카페 및 쇼핑가로 재조성



< 몬트리올 >

○ 언더그라운드 시티

- 1962년 전체 길이가 32km에 달하는 대형 지하도시로 몬트리올의 혹독한 추위에 대응하여 만들어졌으며 1700여개의 상점 등이 있어 사실상 도시 속 또 다른 도시로 평가되는 곳으로,
- 전체 지하도가 하나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하도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덧 다른 건물로 들어와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건물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다.
- 안내도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안내도에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관광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하라 스마트폰의 GPS가 연결되지 않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나라의 안내도에 현재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시민편의 중심의 안내는 우리나라가 앞선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다.
- 눈에 띄는 제연시설 또는 최신 소화시설을 보이지 않았으며, 건물 입구에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화재를 확산을 막는 정도였으며, 특이하게 소화기 위치 표시가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어 시인성은 좋지 않았다.

○ 구시가지

- 프랑스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으로 1642년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졌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옛 모습을 간직하여 현재 관광 중심지가 된 곳이다.
- 저녁이면 노트르담 성당에서 AURA 빛 공연이 펼쳐진다. 엄숙한 종교시설에서 이러한 공연이 펼쳐진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공연이 진행되는 40분 동안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다양한 색채의 레이저가 완벽하게 성당 내부 건축물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레이저만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을 준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고, 개인의 종교를 떠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도 이동



지하도 안내도
(현위치의 표시가 없음)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도



화재발신기 및 방화문

소화기 및 소화기 위치 표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시인성이 좋지 않음)



기존 건물벽을 철거 후 지하도와 연결
(철근 배근 모습이 그대로 보임)

지하도 누수로 인해 유도배수관 설치



노트르담 성당 AURA 빛 공연



구시가 거리



구시가 거리



구시가(다름 광장)

< 퀘벡 >

○ 퀘벡역사지구

-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인 정착지 중 한 곳으로 1985년 구도심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며,
- 17세기 초 프랑스의 탐험가 사뮈엘 드 샹플랭(Samuel de Champlain, 1567~1635)이 개척한 곳으로, 다수의 요새, 성문, 방어 시설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북아메리카의 유일한 성곽 도시라고 한다. 절벽 위에 건설된 어퍼타운(Upper Town)에는 교회, 수도원, 군대 막사인 도핀 르두트(Dauphine Redoubt), 프랑스풍 호텔인 샤토 프롱트낙(Château Frontenac)과 같은 기념물 등과 종교 시설과 행정 시설들이 남아 있었으며, 절벽 아래에는 로어타운(Lower Town)이 있으며 이 두 타운이 옛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식민 요새 도시의 좋은 사례로 꼽힌다고 한다.

- 관광안내소에서는 역사지구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퀘벡에서 즐길 수 있는 일일투어 상품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었다. 환전 및 와이파이 이용도 가능했다. 올드퀘벡 명소의 위치를 문의하자 지도에 꼼꼼하게 표시해 주었다.
- 최근 드라마 ‘도깨비’ 를 통해 더욱 알려져, 한국, 중국,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촬영지를 보기위해 관광하고 있었다. 부산시민공원에도 방탄소년단 뷁의 방문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자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방법일 것 같다.



관광안내소



구시가지



구시가지(아브라함 공원)



구시가지(샤토 프롱트낙 호텔)



구시가지



구시가지

- 여행기간 동안 렌터카를 주로 이용하며 캐나다 사람들의 운전습관을 관찰해봤다.
 - 시내도로: 많은 회전교차로에서도 질서 있게 순서를 지키며 통과하였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반대방향의 차량도 모두 정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켰다.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었다. 선진국의 성숙한 운전습관이 돋보였다.
 - 고속도로: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정확하게 구분하였으며,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순찰차는 여행기간 볼 수 없었으나, 많은 과태료 탕인지 모르겠지만 과속차량은 거의 없었다.
- 비싼 교통비와 주차요금 탓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았으며, 공공자전거가 활성화 되어 있었다.
- 퀘벡주의 차량에는 앞 번호판이 없었다. 앞 번호판은 차량의 단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앞 번호판 없이도 차량들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퀘벡주에서는 앞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 노상주차장에는 관리인이 없고 무인 정산기만 있었지만 모두 정해진 요금을 정확히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었다.
- 주차위치를 표시하는 기둥은 자전거거치대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있어 활용성이 돋보였다.
- 주차장 이용요금이 요일별, 시간별로 각각 달라 적응이 쉽지 않았으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몬트리올의 경우 주차app을 이용하면 요금 결제는 물론 주차 잔여시간 확인, 주차시간 연장 등이 가능하여 주차장 이용이 편리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app은 실제로도 현지인들이 많이 쓰고 있었다.



스쿨버스 정차시 양방향의 차량이 모두 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한다



노상주차장 무인 요금정산기



공공자전거



앞 번호판 없는 차량들(퀘벡주 몬트리올)



요일·시간별로 상이한 주차가능시간



몬트리올 주차app

- 기존의 건축물, 자연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관광자원 개발 노력이 엿보였다. CN타워(1976년)의 옛지워크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나이아가라의 경우 유람선체험, 헬리콥터체험, 제트보트체험, 짚라인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몬트리올 노트르담 성당(1829년)은 몬트리올 설립 375주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우라 쇼를 개발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성황리에 상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지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호텔, 음식점, 상점 등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

- 관광센터는 단순한 안내뿐만 아니라 환전, 와이파이 이용, 투어 상품 판매 등을 병행하여 관광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 토론토 공항의 탑승 대기 장소에는 수많은 태블릿PC가 설치되어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설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간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수익도 올리고 있었다.



CN타워 액티비티(엣지워크)



나이아가라폭포 액티비티(유람선체험)



나이아가라폭포 주변 액티비티
(카트라이더)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성당



퀘벡 관광안내소



토론토공항 탑승 대기장소
(수많은 태블릿PC 설치)